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른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 및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
Working Mothers' Attitudes Toward Maternal Employment and Beliefs
Regarding Child Care Quality According to the Operating Modalities and
Hours of Child Care Centers

동남보건대학 보육학과
부교수 김혜금

Department of Child Care Education, DongNam Health College
Associate Professor : Hye Gum,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orking mothers' attitudes toward maternal employment and beliefs regarding childcare quality according to the childcare centers' operating modalities and hours. Participants were 261 mothers sending their children to full day, nighttime, or 24-hour childcare centers. We conducted the data analysis two-way ANOVA using SPSS.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in these working mothers' attitudes toward maternal employment and their beliefs regarding childcare quality and childcare centers' operating modalities and hours.

주제어(Key Words) : 취업모(working mother), 취업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maternal employment),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beliefs regarding child care quality)

I. 서론

취업여성이 증가하면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보육시설 이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09)의 경제활동 인구연구에 의하면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74.2%를 차지하는데 특히 만 5세이하 영유아를 자녀를 둔 30-40대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높다. 취업모의 근무유형도 다양해져서 전일제로 일하는 취업모도 있으나 파트타임제로 일하는 경우도 많으며 근무시간대도 주간 뿐 아니라 야간이나 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시간대에 종사하는 취업모가 증가하고 있다(정기선 외, 2009).

취업모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나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취업모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지 체계는 미흡한 편으로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느끼는 취업모가 많다(연합뉴스, 2009. 06. 01; 이상화, 2002; 한국여성개발원, 2004). 특히 야간에 근무하거나 교대로 근무하는 직종의 취업모는 근무시간대의 특성으로 인해 영유아기 자녀의 보육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집 근처에 자녀를 돌보아줄 친인척이 없는 경우 대부분 자녀의 보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선택하며 자녀가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보육시설을 선정할 때 취업모들은 보육서비스의 질 이외에 보육시간, 보육시설의 유형, 지리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황혜경, 정미미, 2008).

보육시간은 취업모의 근무시간을 최대한 반영하여 하루 12시간 운영되는 종일제 보육시설과 기본 보육시간인 7시 30분부터 19시 30분 이후 최대 4시간 30분 이하의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을 실시하는 시간연장 보육시설과 24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24시간 보육시설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2010)의 보육통계에 의하면, 200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간연장제와 24시간 보육서비스를 받는 영유아수는 각각 5,440명과 708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수 1,175,049명의 5.2%를 차지한다. 취업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특수보육 시설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모는 전업주부보다 종일제나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며(이경선, 김주후, 2009), 취업모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전업주부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시간보다 훨씬 더 길다(나정, 장영숙, 문무경, 2000; 서문희, 2001; 서문희, 임상현, 임유경, 2000; 황혜경, 정미미, 2008).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위해 취업모가 가장 고려하는 보육시설 선택 변인은 보육서비스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수의 부모들은 민간보육시설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질이 더 우수하다고 믿으며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여성부, 2005; 황혜경, 정미미, 2008).

취업모는 자녀의 발달에 취업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원하는데 보육시설 경험은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강진아, 1998; 권혜진, 1996; 이완정, 1999; 장은경, 박은혜, 김희진, 1998; Andersson, 1989; Burchinal, Roberts, Nabors, & Bryant, 1996; Frede, 1995)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우수한 경우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양호한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발달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영유아로 하여금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취업모가 갖게 되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죄책감을 덜어줌으로써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감에도 기여한다. 즉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느끼는 취업모는 자신의 부모역할이 보완되고 있다고 느껴 자녀양육을 본인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덜 갖게 되며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문영경, 정지나, 이영, 2008; 안선희, 2005). 대리양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모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지만(문혁준, 2004; 박윤미, 2002), 대리양육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취업모는 자신의 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으며 심리적 복지감은 낮아지게 된다(박성연, 임미리, 2002; Greenberg & O'Neil, 1990).

정부는 보육시설의 질적 관리를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2월 현재 35,550개소의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은 32,498개소로 약 91.4%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증시설은 20,324개소로 전국 보육시설의 57.2%가 평가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평가인증율의 지역적인 차이가 심해서 모든 지역의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겠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인증율은 83.8%이나 시설수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과 서울 지역의 인증율은 각각 38.9%와 64.1%로 지역적 편차가 커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보육시설을 접할 기회가 그리 높지 않다. 특히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시설은 시설수가 적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거나 교대근무를 하는 취업모는 원하는 보육시간대를 충족하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찾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취업모는 영유아기 자녀를 돌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발달을 위해 종일제를 비롯하여 시간연장제나 24시간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취업이 영유아와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취업모가 인식하는 취업에 대한 태도는 어머니 개인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Hock, Gnezda, & McBride, 1984; Hock, Morgan, & Hock, 1985). 취업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자아실현에도 도움이 되며 타인에게 자녀의 보육을 맡기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는 취업을 선택하고 일과 관련된 경력을 쌓고자 한다. 그러나 일을 하는 것이 가족을 붕괴시키고 자녀에게 해가 된다고 믿는 여성은 일과 가정을 통합하는데 갈등과 긴장을 느끼게 된다. 또한 취업으로 인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취업의 이익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취업모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보호 아래 영유아기 자녀를 맡기는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자신이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가지며(정태연, 노현정, 2005) 심지어 우울증이나 슬픔 등을 느낄 수 있다(Hock et al., 1984).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대에 따라 취업모가 인식하는 보육서비스의 질과 취업모의 일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취업모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취업모를 위한 보육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취업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자녀양육 실태(최정미, 이숙, 1993; 황혜경, 정미미, 2008), 양육태도(문혁준, 2003; 방경숙, 2004; 오선영, 최정미, 2004; 이혜상, 2003), 양육스트레스(문혁준, 2004;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유일영, 이경자, 채선미, 1998), 자녀양육지원제도(이영미, 2005), 보육서비스 만족감(안선희, 2005), 양육죄책감(정태연, 노현정, 2005), 일-자녀양육 양립(이완정, 2009)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른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 및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취업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취업모와 관련된 보육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며 특히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취업모의 인식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 이용시간(종일제, 시간연장 및 24시간보육)과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보육시설 이용시간(종일제, 시간연장 및 24시간보육)과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취업모의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른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 및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종일제 보육시설 5곳과 시간연장제 10곳,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10곳, 총 25곳의 보육시설을 선정하였다. 종일제, 시간연장,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영유아수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각 시설유형당 100명의 취업모를 선정하였고 또한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의 수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취업모 150명과 민간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150명의 취업모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취업모로 제한한 이유는 24시간 보육시설이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에만 있기 때문에 이들 보육시설을 먼저 선택했고 이중 가정보육시설은 개별 가정보육시설에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영유아의 수가 너무 적어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차이가 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시간과 취업에 대한 태도 및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보육시설 유형을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배포된 질문지는 300부이며 회수된 질문지는 274부로 이 중에서 부실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1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최종 연구대상은 취업모 261명으로 취업모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가 156명으로 59.8%를 차지했고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직과 관리직이 153명(58.8%)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연령은 만 5세가 88명(33.5%)으로 가장 많았고 1, 2명의 자녀수를 지닌 경우가 249명(95.2%)이었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500만원이상이 162명(62.2%)이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에는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와 보육서비스 질에 인식 척도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척도의 내용이 취업모에게 적절한지 그리고 내용이 타당할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유아교육 전공자와 아동학 전공 교수 2명에게 문항 검토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취업모가 이해하기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항의 내용을 수정하고 2009년 6월 22일에서 29일 사이에 경기도 지역의 종일제, 시간연장, 24시간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취업모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나누어 주었다. 취업모가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0~30분 정도였으며 이해하기 힘든 문항은 없으므로 나타났다. 각 척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취업에 대한 태도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태도 척도는 Greenberger, Goldberg, Crawford 와 Granger(1988)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의 취업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취업이 영유아기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취업의 이익과 관련한 문항(13문항)과 취업이 영유아기 자녀와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손실과 관련한 문항(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의 긍정적인 영향과 관련한 문항으로는 “전일제로 근무하는 취업모의 자녀는 예기치 않은 계획의 변화에도 잘 적응할 것이다”와 같은 문항을 들 수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한 문항으로는 “취업모의 영유아기 자녀는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매우 그렇다)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손실 문항은 역산하여 채점하였으며(1점 = 6점, 6점 = 1점)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이 영유아기 자녀에게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취업의 이익 하위영역이 .88, 취업의 손실 하위영역이 .90이었고 전체적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2이었다.

2)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인식 척도는 Shpancer 외(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보육서비스 질 척도는 보육교사(12문항), 보육시설 및 보육환경(5문항), 보육과정(4문항), 일반적인 운영관리(4문항) 총 25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5 = 매우 그렇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로 전체 점수는 1~125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하위영역별로 .81~.92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적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8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9년 6월 22일에서 29일 사이에 종일제, 시간연장, 24시간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취업모 12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질문지 작성 시간은 20~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은 없으므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종일제, 시간연장, 24시간 보육시설 총 25곳에 우편으로 질문지를 보내고 가정통신문과 함께 취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빈도	백분율
보육시설 이용시간	종일제	55	34.2
	시간연장	56	34.8
	24시간	50	31.0
보육시설 유형	국공립	81	50.3
	민간	80	49.7
어머니의 연령	20대	8	3.1
	30대	232	88.7
	40대	21	8.2
어머니의 학력	고졸	44	16.9
	전문대졸	61	23.3
	대졸	131	50.3
	대학원졸 이상	25	9.5
어머니의 직업	전문직	86	33.0
	관리직	67	25.8
	사무직	30	11.6
	단순노무직	27	10.4
	기술직	21	8.1
	영업직	14	5.2
	자영업	16	5.9
자녀 연령	2세 미만	32	12.3
	2세	53	20.4
	3세	33	12.7
	4세	55	21.1
	5세	88	33.5
자녀 수	1명	137	52.4
	2명	112	42.8
	3명	12	4.8
자녀 출생 순위	첫째	177	67.7
	둘째	80	30.8
	셋째	4	1.5
가정의 월평균소득	200~300만원 미만	4	1.5
	300~400만원 미만	25	9.6
	400~500만원 미만	70	26.7
	500~600만원 미만	71	27.3
	600만원 이상	91	34.9

업모에게 배부해주기를 보육시설장에게 부탁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총 30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고 회수된 질문지는 274부로 회수율은 91.3%였으며 이 중에서 부실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261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4.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Windows형 SPSS 12.0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고 연구문제 분석은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그리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른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종일제		시간연장		24시간		합계	
		M	SD	M	SD	M	SD	M	SD
취업에 대한 태도	민간	101.17	10.83	106.01	8.36	110.21	10.04	106.00	10.03
	국공립	105.75	9.07	107.20	10.89	113.68	10.94	109.50	10.84
	계	103.82	10.04	106.35	9.08	112.25	10.65	107.70	10.56

〈표 3〉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른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취업에 대한 태도	보육시설 유형(A)	1	471.20	471.20	4.802*
	보육시설 이용시간(B)	2	2673.23	1336.65	13.621***
	A × B	2	91.89	45.94	.468
	오차	155	2099.54	98.12	
	전체	160	2452.68		

* $p < .05$, *** $p < .001$

Ⅲ. 연구결과

1.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른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른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보육시설 유형($F = 4.802, p < .05$)의 주효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취업모가 민간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취업모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시간($F = 13.621, p < .001$)의 주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어느 이용시간에 기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을 한 결과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종일제와 시간연장 시설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간연장과 24시간 보육시설, 종일제와 24시간 보육시설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 유형과 보육시설 이용

시간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른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

보육시설 이용시간과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은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은 보육시설 유형($F = 12.331, p < .01$)의 주효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의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인식은 국공립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취업모가 민간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시간($F = 17.703, p < .001$)의 주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어느 이용시간에 기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 검증을 한 결과 취업모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시간연장과 24시간 보육시설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종일제와 시간연장, 종일제와 24시간 보육시설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은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경우 더 높게

〈표 4〉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른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의 평균과 표준편차

		종일제		시간연장		24시간		합계	
		M	SD	M	SD	M	SD	M	SD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	민간	91.17	10.83	88.01	8.36	89.21	10.04	86.73	10.03
	국공립	95.75	9.07	87.20	10.89	87.68	10.94	90.33	10.84
	계	93.82	10.04	86.35	9.08	87.25	10.65	89.25	10.56

〈표 5〉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른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	보육시설 유형(A)		1	7.89	7.89	12.331**
	보육시설 이용시간(B)		2	316.93	158.46	17.703***
	A × B		2	6.76	3.38	.75
	오차		155	2372.08	8.95	
	전체		160	3321.36		

** $p < .01$, *** $p < .001$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시설 유형과 보육시설 이용시간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종일제, 시간연장제, 24시간 보육시설에 보내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른 취업에 대한 태도와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자녀를 국공립보육시설에 보내는 취업모가 자녀를 민간보육시설에 보내는 취업모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 타카만족도가 높다는 박성연과 임미리(2002)의 연구를 고려할 때 국공립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이라고 해서 모든 국공립보육시설이 질적으로 우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결과는 질적으로 우수한 국공립보육시설이 취업모의 요구에 보다 반응적이고 만족스러운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는 종일제와 시간연장제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종일제와 24시간 보육시설간 그리고 시간연장과 24시간 보육시설간 차이가 나타나 24시간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야간근무나 교대근무 등의 특수한 근무유형을 지니고 있으므로 24시간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들 보육시설이 없으면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하기 어려운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24시간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24시간 보육시설의 도움으로 자신의 직업에 전념할 수 있기 때

문에 24시간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에 만족하고 자신의 일이 자녀와 가정에 손실보다는 이익을 더 많이 주고 있다고 느끼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이면서 24시간 운영되는 보육시설이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취업모의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인식은 자녀를 국공립보육시설에 보내는 취업모가 자녀를 민간보육시설에 보내는 취업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 부모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질을 민간보육시설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여성부(2005)의 연구와 일치하며,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차이가 있으며 보육시설 각 유형에 따라 시설의 질에 대한 부모의 관점 또한 차이가 있다는 지성애(2007)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더 좋다고 취업모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민간보육시설보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취업모들이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간보육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 시점에서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은 시간연장과 24시간 보육시설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종일제와 시간연장보육시설간 그리고 종일제와 24시간 보육시설간 차이가 나타나 종일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취업모들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보육시설의 경영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전준애, 1999)는 것을 고려할 때, 취업모가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자체 노력이 더욱 많이 투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며 더불어 이들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보육을 이용한 만 0세아의 취업모가 직장에서 아이로 인한 갑작스러운 외출, 지각, 결근 등이 줄고 직장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보육이용이 어머니의 취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문영경, 정지나와 이영(2008)의 연구

결과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보육시설이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취업유형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므로 종일제 보육시설 뿐 아니라 시간연장과 24시간 보육시설과 같은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특수보육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서문희, 신나리와 유은영(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야간보육 58.7%, 휴일보육 75.3%, 24시간 보육 79.4%, 시간제 보육 63.4%로 특수보육 요구가 매우 높았다. 또한 황혜경과 정미미(2008)의 연구에서도 시간제 보육과 야간보육 등의 특수보육에 대한 취업모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간연장과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취업모가 믿고 만족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에 대한 취업모의 높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시간연장 보육서비스의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데서 연유한다(이완정, 2009). 특수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인증지표가 개발·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특수보육시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가 보육시설에 만족하고 그러한 만족감은 업무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직장에 이익이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한 김리진과 윤종희(2000)의 연구는 취업모의 일의 특성을 반영하는 보육시설 운영이 취업모의 보육시설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특수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간연장과 24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른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와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취업모가 필요로 하는 보육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연구대상이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한정되어 연구결과 및 연구결론이 유도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모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질적인 접근방법을 병행하지 못한 채 양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실제 느끼고 있거나 행동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에 따른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와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모의 자녀에게 필요로 하는 보육시설 유형과 이용시간, 그리고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취업모의 취업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취업모를 위한 보육정책 입안자에게 기초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강진아(1998). 탁아기관의 질과 영아의 탐색/놀이 행동과의 관계: 물리적 놀이환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혜진(1996). 보육시설의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리진, 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 나정, 장영숙, 문무경(2000).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및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문영경, 정지나, 이영(2008). 민간보육시설 이용자의 영아보육 만족도 및 요구도. **한국영유아보육학**, 54, 163-187.
- 문혁준(2003).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훈육방법에 대한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81-94.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박성연, 임미리(2002). 취업모의 직업관련 특성, 탁아기관의 질 및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57-68.
- 박윤미(2002). 취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방경숙(2004).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양육태도, 양육부담감 및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과 건강관련 변인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10(2), 217-224.
- 보건복지부(2010). **2009년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서문희(2001). **자녀양육실태와 미취학 아동 보육 교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관한 분석: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의 변화양상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 신나리, 유은영(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 강화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서울: 여성가족부.
- 서문희, 임상현, 임유경(2000).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자격관리를 중심으로.**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 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안선희(2005).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만족 및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9(4),** 311-327.
- 여성부(2005). **2004년 보육시설 실태조사.** 서울: 여성부.
- 연합뉴스(2009. 6. 1). <한국노총 성명> 맞벌이부부에 대한 보육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90601143710555&p=yonhapp>에서 2010년 3월 12일 인출
- 오선영, 최정미(2004).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2),** 109-121.
- 유일영, 이경자, 채선미(1998). 탁아방법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직업만족도 비교연구: 서울시내 일개 대학병원의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2),** 159-169.
- 이경선, 김주후(2009). 여성의 유치원·보육시설 및 사교육 선택유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9(10),** 464-473.
- 이상화(2002).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보육욕구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미(2005). 취업모의 자녀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95-104.
- 이완정(1999).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평가. **한국영유아보육학, 17,** 97-114.
- 이완정(2009). 취업모의 일-자녀양육 양립 부담감과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요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117-126.
- 이혜상(2003).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8(3),** 337-354.
- 장은경, 박은혜, 김희진(1998). 만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 **대한가정학회지, 36(4),** 137-146.
- 전춘애(1999). 어머니의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성 인식 정도. **한국영유아보육학, 17,** 355-379.
- 정기선, 임양미, 김혜금, 장은미, 조인숙, 이혜선(2009). **3교대 근무자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모델 개발: 하이닉스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 정태연, 노현정(2005).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0(2),** 211-231.
- 지성애(2007).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영유아 발달과 시설의 질에 대한 부모의 관점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23-43.
- 최정미, 이숙(1993). 교사직 취업모의 자녀위탁 실태 및 탁아요구에 관한 조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34-146.
-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연보 2008.** 대전: 통계청.
- 한국여성개발원(2004). **2004 여성통계연보.**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황혜경, 정미미(2008). 강원도 보육시설에 대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이용실태, 만족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 차이. **한국영유아보육학, 53,** 199-218.
- Andersson, B. E.(1989). Effects of public day-care: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0,* 857-866.
- Burchinal, M. R., Roberts, J. E., Nabors, L. A., & Bryant, D. M.(1996). Quality of center child care and infant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7,* 606-620.
- Frede, E.(1995). The role of program quality in producing early childhood program benefits. *Future of Children, 5(3),* 115-132.
- Greenberg, E., & O'Neil, R.(1990). Parents' concern about their child's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fathers' and mothers' well-being and attitudes toward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3),* 621-635.
- Greenberger, E., Goldberg, W. A., Crawford, T. J., & Granger, J.(1988). Beliefs about the consequences of maternal employment for childr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35-59.
- Hock, E., Gnezda, M., & McBride, S.(1984). Mothers of infants: Attitudes toward employment and motherhood following birth of the first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2),* 425-431.
- Hock, E., Morgan, K. C., & Hock, M.(1985). Employment decisions made by mothers of infa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9,* 383-402.
- Shpancer, N., Bowden, J., Ferrell, M., Pavlik, S., Robinson, M., Schwind, J., et al.(2002). The Gap: Parental knowledge about daycare. *Early Child Development & Care, 172(6),* 635-642.

접 수 일 : 2010년 5월 25일

심사시작일 : 2010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 2010년 7월 14일